

조영미 장편소설

오늘도 열리는 일기장



독서지도안

주제어: #성장소설 #일기 #진실 #감사하는마음 #용서 #교우관계 #역사

분야: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문학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주|자|음|과|모|음

책 소개

“그날 휴대폰만 제대로 찾아갔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 126권 『오늘도 열리는 일기장』은 14년 차 교사인 작가 조영미의 장편소설로, 하루아침에 학폭 가해자가 되어 버린 주인공 장연우가 인성 교육을 받기 위해 간 복지관에서 수수께끼의 일기장을 발견해 시작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사소한 이유로도 타인을 안 좋게 판단한다. 하지만 누군가를 쉽게 싫어할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감사하다’는 말로 끝맺는 『오늘도 열리는 일기장』의 따뜻함에 주목하길 바란다. 일기장의 주인이 남긴 반짝이고 희망찬 말들을 연우와 함께 조용히 입으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주변에 놓인 소중한 감사한 것들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테니.

학습 목표

1.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2. 일기를 읽고 글쓰이에 대한 정보를 추측할 수 있다.
3.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
4.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인물의 삶과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차시별 활동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읽기 전	1	[활동 1] 표지 속 일기장의 내용 상상하기 [활동 2] 다른 사람의 일기를 몰래 읽은 경험 공유하기 [활동 3] 일기를 읽고 글쓰이에 대한 정보 추측하기
	2	[활동 1] 근거를 들어 연우의 성격 표현하기 [활동 2] 연우가 일기장의 주인공을 너구리 눈이라 생각한 이유 파악하기
읽기 중	3	[활동 1] 해리에게 보일 반응 상상하기 [활동 2] 본문 속 일기를 읽고 글쓰이에 대한 정보 추측하기
	4	[활동 1] 연우가 장례식장에서 일기장의 주인공을 떠올린 이유 파악하기 [활동 2] 일기를 읽고 연우가 달라진 점 정리하기
읽기 후	5	[활동 1] 책을 읽은 소감 100자 평으로 서술하기 [활동 2] 연우 입장에서 그동안 복지관에서 겪은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기
	6	[활동 1]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연우의 일기 쓰기
	7	[활동 1] 노래 가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삶 이해하기 [활동 2] 동영상과 지식백과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 이해하기
	8	[활동 1] 기억에 남는 장면과 구절을 떠올려 나만의 표지 완성하기
심화		[가볼 만한 곳] 금천 순이의 집(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1차시	읽기			[1] 표지 속 일기장의 내용 상상하기 [2] 다른 사람의 일기를 몰래 읽은 경험 공유하기 [3] 일기를 읽고 글쓰이에 대한 정보 추측하기
	전	중	후	

활동 1 표지 속 일기장의 내용을 상상해 보세요.

- 표지 속 인물의 표정에 주목하여 일기장의 내용을 추측해 봅니다.
- 일기장 주위에 그려진 것들을 활용하여 짙막한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활동 2 친구나 가족의 일기를 몰래 읽은 경험이 있나요? 언제 어떤 일기를 읽었는지, 그 후엔 어떻게 대처했는지 경험을 떠올려 공유해 봅시다.

나의 경험	
친구의 경험	

활동 3 다음 일기를 읽고,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추측해 봅시다.

오늘 또 동생이랑 싸웠다. 준기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 요즘 더 그렇다. 분명히 내가 유튜브를 볼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다른 걸 트는 거다. 내가 볼 시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다. 어제 내가 10분을 더 봤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나는 참지 못하고 준기 머리를 살짝 밀었다. 그랬더니 준기가 나를 세게 밀치고 발로 차기 시작했다. 엄마가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찔하다. 근데 엄마는 자꾸 준기 편만 든다. 엄마도 밉다. 이제 준기도 학생이고 어리지 않은데 언제까지 내가 양보만 해야 하는 걸까. 얼른 아빠가 왔으면 좋겠다. 준기는 요즘 살이 많이 찌서 힘도 좋아진 것 같다. 나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야겠다.

일기에서 근거를 찾아 적어 보세요.

	나의 추측	근거
나이		
형제 관계		
성격		
최근 고민		
다짐		

2차시	읽기			[1] 근거를 들어 연우의 성격 표현하기 [2] 연우가 일기장의 주인공을 너구리 눈이라 생각한 이유 파악하기
	전	중	후	

활동 1 연우의 성격으로 적절한 표현을 고르고,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배려심이 깊다

변덕이 심하다

열정이 넘치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독립심이 강하다

게으름이 많다

창의력이 뛰어나다

참을성이 부족하다

연우의 성격	근거

활동 2 연우가 일기장의 주인공을 너구리 눈이라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우는 열은 미소를 띤 채 일기를 읽고 또 읽었다. 어느 순간, 또박또박 적힌 글씨 위로 작은 단어장을 들고 있던 너구리 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동안 왜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맙소사! 일기장의 주인공이 바로 너구리 눈인 것이다! 여기에 일기장을 숨겨놨으니까 기를 쓰고 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였네.

p. 86-87

활동 1 내가 연우라면 해리의 자백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해리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너는, 뭐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했지? 정말 그럴까?”

연우는 가만히 해리를 바라봤다. 몹시 힘들어 보였다.

“……내가 그랬어. 서은이가 아니라, 내가 그랬다고! 정말 미안해. 미안해…….”

깜짝 놀란 연우는 해리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고 믿었다. 해리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괴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p. 161-162

활동 2 일기를 읽고 글쓰이에 대한 정보를 추측해 봅시다.

12월 3일 월요일

본격 겨울로 가는 비가 내리다.

바나나킥이라는 과자를 처음 먹어봤다. 달콤하고 바삭바삭한 게 꿀맛!

바나나는 노란색이라던데 바나나킥 포장은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 바나나 과자도 이렇게 맛이 있는데 진짜 바나나는 얼마나 맛이 있을지 궁금하다. 다음에 먹어볼 날이 있겠지.

새로 들어온 영주에게서 노동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영주는 우리가 단결하고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한다고.

그런데 내 작은 힘으로, 우리의 작은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선생님들은 항상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했는데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일까?

야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 노예가 된 기분이다. 여전히 두통이 있고 수시로 코피가 흐른다. 먼지가 자욱한 데다 실밥까지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상태가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다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바빠 미루고만 있다. 수술을 하라고 하면 어찌나.

아침에 겨우 일어나면 얼굴이 통통 부어 있다. 내 얼굴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 의문이 든다.

올해도 결국 고향에 가지 못했다. 내년엔 꼭 갈 수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슬이 입학 전에는 반드시! 그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여야 할 텐데. 바나나킥을 먹어 보니 구슬이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구슬이에게 바나나킥을 반드시 사다 주리라. 두 봉지 사다 주리라. 마음을 강하게 먹자. 내겐 능력이 있다. 소중한 가족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p. 176-177

일기에서 근거를 찾아 적어 보세요.

	나의 추측	근거
나이		
형제 관계		
성격		
처한 상황		
다짐		

활동 1 장례식장에 간 연우가 일기장의 주인공을 떠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잘 챙기라. 놓고 갈 뻔했다.”

한 귀퉁이에 작은 새싹 무늬가 그려진 노란 손수건이었다. 노란 손수건, 정수 오빠.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궁금한 마음이 넘치다 보니 일기장 속 세계에 들어온 건가. 연우는 정신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엘리베이터 옆에 붙은 전광판을 이제야 확인했다.

(중략)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듯이 서둘러 다시 앞을 바라보자 아저씨가 탄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었다. 문틈 사이에 보이는 아저씨의 두 눈은 잔뜩 충혈되어 있었다. 아저씨는 눈물을 닦고 눈 밑 보조개가 쑥 들어갈 정도로 애써 웃고 있었다.

연우의 동공이 점점 더 커졌다. 아저씨의 보조개에서 눈을 땔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조용히 닫히고, 연우의 눈앞이 빙그르르 돌았다.

p. 188-189

활동 2 서랍 속 일기를 읽고 연우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활동 1 책을 읽은 소감을 100자 평으로 간단히 서술해 봅시다.

활동 1 그동안 복지관에서 겪은 일을 연우가 엄마에게 털어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우가 되어 대화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엄마의 반응도 예상해서 적어 보세요.

• 연우는 일기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연우 엄마, 사실은 내가 복지관에서...

.....

.....

.....

엄마

.....

.....

.....

활동 1 크리스마스 다음 날 연우의 일기를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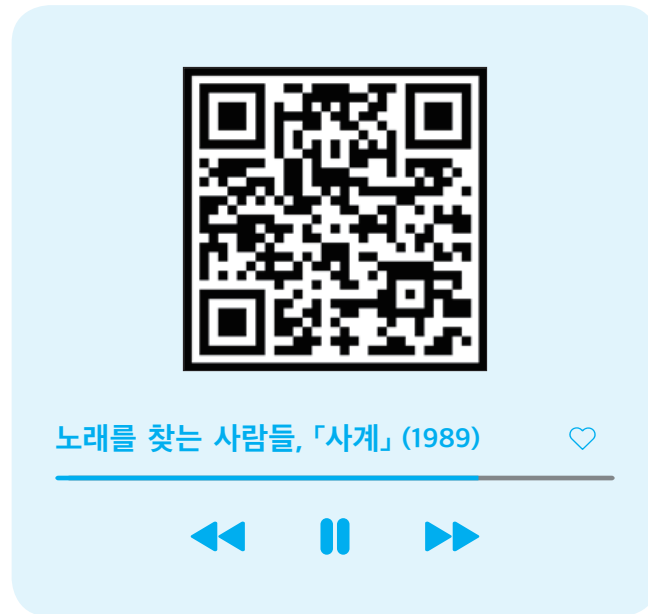
- 크리스마스 날 일기를 참고하여 다음 날 내용을 예측해 보세요.

연우의 일기장 두 번째 페이지

12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

활동 1 다음 노래를 듣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이 노래의 전반적인 느낌은 어떠한가요?

.....

.....

2. 가사에 드러나는 인물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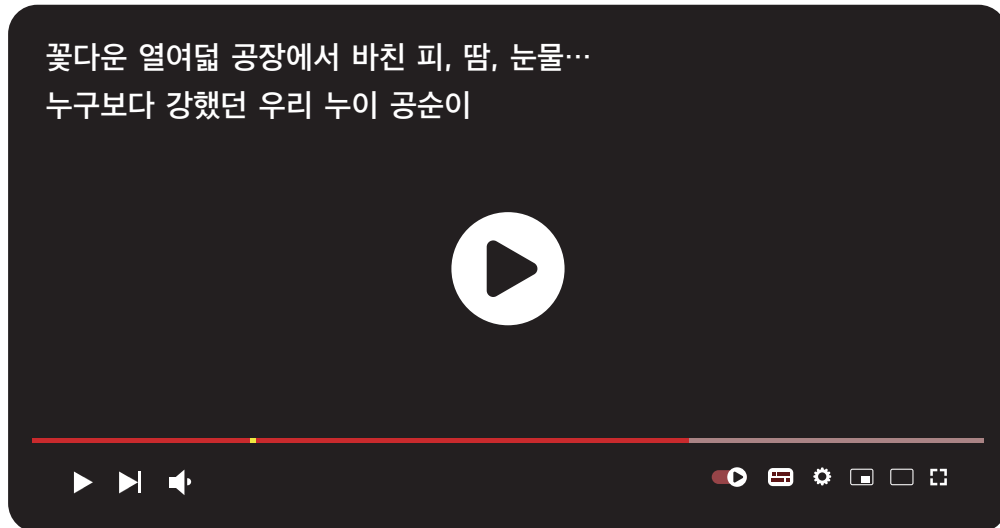
.....

3. 가사를 참고하여 소설 속, 속이 이모의 바람은 무엇이었을지 추측해 보세요.

.....

.....

활동 2 다음 영상과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해 봅시다.



• <https://www.youtube.com/watch?v=VUDkG2V9U20>

한국 여성사 편지: 가발 공장의 노동자 김경숙

지금은 서울에서 큰 공장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때는 옷이나 가발 그리고 과자를 만드는 공장이 많았어. 농촌에서 올라온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을 했지. 가발 공장에서 일했던 한 여성을 만나 보자.

질문자: 오늘은 김경숙 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숙: 안녕하세요? 나는 와이에이치(YH) 무역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예요. 내가 일하는 곳은 가발 공장입니다.

질문자: 언제부터 공장에서 일했나요?

김경숙: 나는 공부를 많이 못 했어요.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곧장 공장에 들어가서 일했으니까 열네 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와서 여러 공장을 다니다가 1976년 지금 공장에 들어왔어요.

질문자: 처음 들어왔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김경숙: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행상을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벌어서는 동생 공부 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고 동생이 대학교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었죠. 내가 들어온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라서 나는 꼬박꼬박 저금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김경숙 언니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으로 가 버리고 공장은 문을 닫았단다. 김경숙 언니와 동료 노동자들은 신민당 당사에 모여 항의를 했지만, 밀어닥친 경찰들 앞에서 해산당했어. 그 과정에서 김경숙 언니는 숨진 채로 발견되었단다. 그때 나이는 스물한 살. 김경숙 언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았을까? 김경숙 언니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어느 노동자가 남긴 글을 보자.

난 노동자입니다. 전 공순이란 말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라인에서 내가 빠져 버린다면 큰 지장을 가져옵니다. 나 한 사람이 빠져도 그런데, 만일 모든 라인 사람들이 빠진다면 회사는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무직원들이 볼펜 굴리고 목에 힘을 주고 우리 앞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굶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각 개인의 힘은 약할지라도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힘이 이룩될 때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난 공순이입니다.

1970년대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를 공순이라고 하면서 업신여겼단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스스로 공순이라고, 노동자라고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무직원도, 사장도 있을 수 없어. 일하는 사람은 모두 사회에 꼭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란다.

이임하, 조승연, 『한국 여성사 편지』, 책과함께어린이, 2009

1. 당시 공장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어떠했나요?

.....

2. 당시 ‘공순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했나요?

.....

3. 이들이 어린 나이에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이들이 가정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세요.

가정에 미친 영향

.....

사회에 미친 영향

.....

활동 1 기억에 남는 장면과 구절을 떠올려 나만의 표지를 완성해 보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

기억에 남는 구절

소셜 속 '숙이 이모'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곳이에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순이의 집'은 구로공단의 역사와 노동자의 삶을 다룬 근현대사 체험관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노동자가 생활한 쪽방(별집)을 복원(재현)한 것인데요.

'순이'는 대한민국 산업화 시절을 살아온 여성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로 순이의 집은 여공들의 애환과 희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이의 집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장소를 넘어, 현재의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권리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 ▷ 관람시간: 월요일~토요일, 10:00~17:00(입장 마감 16:30)
- ▷ 단체관람: 10인 이상 단체관람일 경우 사전 예약 필수
- ▷ 휴관일: 매주 일요일, 1월 1일, 설 추석 연휴
- ▷ 관람료: 무료
- ▷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2번 출구, 7호선 4번 출구 방향

• 서울주택도시공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together_sh/223574225099